

# 간호사 비율 높고 간호제공시간 늘어날 때

##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케어의 질 좋아져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의 하루간호제공시간이 늘고, 간호사 비율이 높고 이직률이 낮을 때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간호정책 현안과 발전방안' 세션을 6월 14일 주관했다.

이날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 과잉노인 케어' 주제로 발표한 신주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간호인력의 질이 곧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입소노인이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수를 산출해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면서 "간호인력의 구체적인 하루간호제공시간(Hours per Resident Day)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간호사 확보수준과 간호인력 구성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미 외국의 연구에서는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주현 교수가 간호인력과 케어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횡단적·종단적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신주현 교수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하루간호제공시간이 늘고, 간호대체인력 대비 간호사의 비율이 높고, 간호사의 이직률이 낮을 때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발생률, 침상와상 유병률, 경관영양 유병률, 관절가동범위 감소 발생률, 항불안/수



대한간호협회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세션을 열고 노인요양시설 간호의 질 제고, 방문간호 결합형 통합재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면제 사용률 등이 줄어 들었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30명 이상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10~30명상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돼 있다.

'방문간호 결합형 통합재가 활성화 방안' 주제로 발표한 황라일 교수는 "방문간호 결합형 통합재가기관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수급자가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지 않고 통합재가기관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이 2016~2018년 3차에 걸쳐 실시됐다.

황라일 교수는 "시범사업 평가결과에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0%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 번거로움으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 대한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미흡했고, 간호사가 현장의 처치

뿐 아니라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황라일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간호처치를 구분해 건강관리만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통합재가형 시설 및 인력, 수가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한영란 동국대 간호학과 교수, 최규운 울산과학기술대 간호학과 교수, 정미순 늘푸른병원장 원장,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간호인력의 질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며, 노인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의무 배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간호인력 배치수준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으며, 정책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권철승 국회의원 초청 간호정책간담회

#### 경기도 화성시간호사회 ... 간호현안 건의

경기도간호사회 산하 화성시간호사회(회장 김정미)는 권철승 국회의원 초청 간호정책간담회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지난달 말 개최했다.

'보건의료 및 간호정책 제안' 주제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PA간호사 실태, 간호사의 역할 확대, 수술실 CCTV설치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대령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문제인케어를 통한 급여화 확대, 유류간호사 현장복귀를 위한 교육 등 다방면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관심 있게 언급했다.

김정미 화성시간호사회장은 "국민들이 간호사로부터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우선적인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철승 국회의원은 "제안 받은 현안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 아동간호학회 '아동간호학 R&D 전략' 학술대회

한국아동간호학회(회장 안영미)는 하계학술대회를 '아동간호학 R&D 전략과 국제협력사업 조명' 주제로 6월 14일 개최했다.

이날 '아동간호학 연구과제 우수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비 수주 준비 및 계획서 작성 전략을 공유했다. '아동간호학 연구과제 운영 전략' 주제발표에서는 아동간호학 임상연구 기획과 수행, 국제협력사업으로서의 아동건강증진프로그램 수행 및 효과 등이 다뤄졌다.

이진숙 기자 jilee@

### 인사 인제대 일산백병원 간호국장 백남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백남순 간호부장이 6월 4일 열린 백병원 창립 87주년 기념식에서 간호국장으로 승진했다.

백남순 간호국장은 이번 승진으로 일산백병원뿐 아니라 재단본부 경영기획국 간호국장직도 겸임하게 됐다.

백남순 간호국장은 "후배 간호사들의 도전과 기회를 많이 열어 줄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면서 "간호사들



이 보람되게 일할 수 있고, 신바람나는 임상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백남순 간호국장은 현재 경기도 고양시간호사회 이사, 경기도 고양시간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혜진 기자 hjjo@

### 소록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음악극 '섬 : 1933~2019' ... 7월 5일부터 공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40여년을 자원봉사로 헌신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담은 음악극이 만들어졌다. '섬 : 1933~2019' 작품이 오는 7월 5~21일 우란문화재단 우란2관에서 공연된다.

이번 작품은 각종 문헌과 소록도 주민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어떠한 편견과 차별 없이 소록도의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했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담았다.

1933년 소록도에서부터 2019년 서울까지 독립된 3개의 연대가 교차하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연결고리로, 1930년대 소록도로 강제 이주한 한센인들의 이야기와 2019년 서울에서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고 '장애도'라는 섬에 갇혀 살아가는 발달장애아동 가족들의 이야기를 사실과 기록에 근거한 픽션으로 그려낸다.

'섬 : 1933~2019'는 희망과 치유, 용기와 사랑의 힘을 전하는 우란문화재단의 '목소리 프로젝트' 두 번째 작품이다. 우란문화재단은 목소리 프로젝트를 통해 선한



### 우란문화재단 목소리 프로젝트 선한 영향력 실존인물 다뤄

영향력을 바탕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실존인물의 삶을 무대에 복원하고 있다.

[관람안내] 우란문화재단은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공연시간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7시(월요일 공연 없음). 예매 인터파크티켓 홈페이지(ticket.interpark.com), 전석 40,000원, 문의 02) 391-8223. 최유주 기자 yjchoi@



### 40여년 소록도에서 자원봉사 한센인들 상처와 아픔 간호

사랑 그 자체였다. 국민훈장, 호암상 사회봉사상, 만해대상 실천부문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받았으며, 명예 전남도민으로 선정됐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고귀한 정신을 배우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요람이 될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이 올해 3월 27일 개관했다. 나눔연수원은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관과 마리안느·마가렛 기념관으로 구성됐다. 이진숙 기자 jilee@

### 2019년 의료인 필수교육 주제 확대

필수교육 주제		
- 의료윤리	- 의료법령	- 감염관리
- 폭력·성희롱·성폭력예방	- 장애인건강권	
- 응급상황대비교육	(기본소생술, 전문심혈관 소생술 등)	
- 노인·아동학대예방	- 자살예방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의료인은 필수교육(1개 주제 이상)을 면허신고시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필수교육 주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표시는 2019년도 추가된 필수교육 주제입니다.

# 31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최다 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기술직 공무원 → 간호직 → 보건직 → 보건진료직 → 의료기술직

국가 면허시험 → 간호사 국가고시 → 위생사 → 보건교사 임용고시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대방열림고시학원 바로가기 QR코드

NAVER 진통카페 바로가기 QR코드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8길 4 신한헤스티아 2층 (영등포역 5번출구)

# 보건교사 특강

## 최신 동영상 강의 수강신청 및 접수중

노성신 기초간호과학, 응급간호, 학교성인질환, 노인간호

오정화 아동간호, 모성간호

김희영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정신간호

### 3인의 전공·전문교수진

- 간호직공무원, 간호사국가고시에서 검증완료된 전문교수진
- 최신 경향 집중 분석, 제대로 된 강의준비
- 10년 이상의 현장강의 경력 [현재 진행중]
- 경쟁교재 및 강의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 수강료

보건교사 스터디 카페 바로가기 QR코드